

여성노인의 가구유형 및 빈곤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

강현정·김윤정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Life Satisfaction of Older Women Focused on Household Types and Poverty Levels

Kang, Hyun Jung · Kim, Yun Jeong
Dept. of Elderly Welfare Hanseo University, Seosan,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and compare variable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of older women by focusing on household types and poverty levels. The study used data from the 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ing administered by the Korea Labor Institute in 2006. The data for 1,017 older women ages over 65 including 427 single households and 590 couple households was analyzed. First, interaction effects of household types and poverty levels on life satisfac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e non-poverty households of older women, there was no explicit difference between single households and couple households in life satisfaction, but for the poverty households, single households were lower in life satisfaction than couple households. Second, as a result of reviewing four groups of older women (poverty-single household, poverty-couple household, non-poverty-single household, and non-poverty-couple household,), besides religion,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 education level, number of children, health level, residence area, and status of economic activity. Third, when analyzing variable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common predictors for the four groups were health level and ownership of house. Older women who perceived to be healthier and owned their own homes were higher in life satisfaction. For poverty-single households, older women with over middle school graduation were also higher in life satisfaction, but for poverty-couple households, older women with over middle school graduation and more children were higher.

Key words: KLoSA, poverty, older women, life satisfaction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역사적으로 남성에 비해 항상 여성의 빈곤위험이 높았지만, 최근 여성빈곤의 심각성이 더해진

것은 혼인 해체 비율이 증가하고 여성가구주 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이 아닌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한 여성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독자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여성빈

본 연구는 2008년 한서대학교 대학원생 교내연구과제지원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접수일: 2009년 1월 30일 채택일: 2009년 2월 27일

Corresponding Author: Kim, Yun Jeong Tel: 82-41-660-1251 FAX: 82-41-660-1329

e-mail: twoyun21@hanmail.net

곤은 오래된 특성에 덧붙여 새로운 사회적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김수정 2007). 2007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에서 보면 전체 수급자중 65세 이상 노년기가 26.4%에 해당되고 있고 총인구수 대비에서도 8%의 노인인구가 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나, 총인구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연령별 여자수급자 현황에서는 노년기 여성이 33.9%로 가장 높은 순위이고, 총인구수 대비 여성노인의 수급률은 9.9%로 가장 높았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또한, 2000년 가구소비실태 자료를 분석한 석재은(2004)의 연구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비율이 21%로 추정되고, 남성가구주의 3배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빈곤율을 나타냈다.

이처럼 한국여성가구주는 인적 자본, 노동시장 지위, 혼인지위, 가족구성과 같은 요인에서 남성가구주보다 빈곤에 빠질 확률이 높은 불리한 분포를 갖고 있는 동시에 같은 조건에서도 빈곤에 빠질 확률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결혼으로 은폐되어 있었던 여성의 '숨은 빈곤'이 남성생계부양자의 부재라는 상황에서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김수정 2007). 즉, 여성가구주의 빈곤위험이 사실상 남성보다 불리한 소득기회와 생애과정들을 통해 중첩된 빈곤위험으로 인한 것임이 밝혀지고 있다(석재은 2004; 여지영 2003; 김수정 2007).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평균수명 차이로 인해 약8년이라는 기간 동안 남편 없이 지내야 하는 여성노인들은 더 많이 빈곤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여성노인들의 빈곤은 노년기이전에 속해 있던 원가족과 결혼으로 형성한 가족의 빈곤에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만성적 빈곤의 성격을 가지며 노년기 이후에 여성이 경험하는 사별이나 질병의 발병 등 특정한 생애 사건들이 만성적 빈곤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최희경 2005). 결국 노년기빈곤문제는 여성노인의 빈곤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노인의 빈곤은 단순히 빈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년기 삶의 질과 관련된다. 즉, 빈곤문제는 단순히 절대적 차원에서 물질적 결핍에서부터 심리적, 정서적 문제로 확대되어 나

타나는 것(정영숙 2005)으로 빈곤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고, 삶의 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남현주·이현지 2005; 조해경 2002), 본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의 빈곤을 삶의 질과 관련시켜 연구해보고자 한다.

한편, 여성노인 가운데서도 여성노인의 가구 유형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빈곤수준에는 차이가 난다. 먼저 여성노인의 빈곤을 가구유형의 측면에서 보면, 여성노인 단독가구의 절대빈곤율이 62.77%로 부부세대에 비해 높았으며, 빈곤위험도 역시 단독가구 여성노인은 2.21로 가장 높았으며, 최저생계비 기준 소득충족률은 0.6270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가구원과 동거하거나, 노인 단독가구일 경우, 노인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구 순서로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최현수·류연규 2003). 또한 석재은과 김태완(2000)의 연구에서도 노인 단독가구의 빈곤율이 31%인 반면 자녀동거가구의 빈곤율은 4.6%로 가구특성에 따라 노인 빈곤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McLaughlin과 Jensen(2000)은 노인 외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을 경우 이들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노인 빈곤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년기 빈곤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이라는 변수와 더불어 여성노인의 가구유형에도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가구유형별 차이와 더불어 노인의 빈곤은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석재은 2004; 여지영 2003; 윤홍식 2004; 최옥금 2007).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노인 빈곤의 영향요인을 연구한 최옥금(2007)의 연구에서는 연령, 학력, 혼인상태, 자산, 거주지역과 같은 사회인구학적요인과 가구의 특성, 그리고 과거의 직업력이 노인빈곤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석재은(2004)의 연구에서는 빈곤증가 요인이 연령이 많을수록, 임시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구원수가 많은 경우에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이 증가된다고 하였고, 윤홍식(2004)연구에서는 빈곤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사별가구이면서 상용직일 때, 사별가구 이면서 정부보조를 받을 때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이 감소된다고 하였다. 여지영

(2003)의 연구에서는 노인일 경우에는 연령이 많을수록, 비노인 가구원수가 많은 경우에 빈곤 증가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노인의 자산과 거주지역, 교육수준도 노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며(최옥금 2007; McLaughlin & Jensen 2000; Rupp & Strand & Davies 2003; 석재은·김태완 2000에서 재인용), 현재 노동시장에 참여여부(최옥금 2007; McLaughlin & Jensen 2000) 역시 노인빈곤의 영향변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노인의 빈곤은 여성노인의 빈곤으로 귀결되지만, 여성노인 안에서도 가구유형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빈곤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삶의 질이나 만족도 관련 선행연구(권중돈·조주연 2000; 김동배·박은영 2007)는 노인의 경제상태들이 대부분 주관적 경제상태로 측정되었고, 또한 우리나라 노인인구를 과학적으로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는 표본으로 사용되었기에 과학적인 표본추출이 이루어진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노인의 가구유형별 빈곤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밝혀 비교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첫째, 여성노인들의 빈곤여부와 가구유형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달라지는가를 규명한다. 둘째, 여성노인의 가구유형과 빈곤여부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경우, 여성노인을 세대유형과 빈곤여부에 따라 4집단(빈곤 단독세대, 비빈곤 단독세대, 빈곤 부부세대, 비빈곤 부부세대)으로 분류하여 4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본다. 셋째, 여성노인의 4집단 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된 2007년도 고령화패널(KLoSA) 10,254명의 패널 중에서 65세 이상 여성노인 중 단독세대여성노인 427명과 부부세대 여성노인 590명으로 총 1,017명이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모집단은 전국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국민으로 제주도를 제외하였으

며, 시설거주자를 제외하고 일반가구 거주자이다. 표집틀은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조사구이며,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45세이상(1962년 이전)의 중고령자 개인을 대상 컴퓨터를 이용한 개인면접(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방법에 의해 조사되었다.

2. 측정도구

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한다. 자신의 인생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권중돈·조주연 2000),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패널(KLoSA)에서는 “동년배와 비교해서 나의 삶의 만족도가 어느 수준인지?”에 관한 질문으로 10점 단위 100점 만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노인 빈곤여부

노인의 빈곤여부, 즉 빈곤여성노인과 비빈곤여성노인의 구분은 가구 총소득을 이용하였다. 가구 총소득은 가구대표자의 근로총소득, 자산총소득, 공적이전총소득, 금전적으로 지원받은 총소득, 개인연금소득, 기타수입 및 소득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적이전총소득은 공식적인 연금소득과 사회보장 소득을 말한다.

국내에서 빈곤과 불평등을 계산할 때 주로 이용하는 소득 자료(여유진 2005)로 본 연구에서도 가구총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여부를 구분하였다.

가구총소득을 이용하여 빈곤선을 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본 데이터가 2006년도의 자료라는 점을 고려하여, 2006년도 최저생계비를 이용하였다. 2006년도 월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2005)를 1년으로 환산하여 빈곤선을 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빈곤선은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1년 총소득 1인가구는 501만원, 2인가구는 841만원이다.

이러한 통계치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빈곤선 미만의 여성노인세대를 빈곤노인세대로, 빈곤선 이상의 노인을 비빈곤 노인세대로 명명하

였고, 전체 1,017명의 여성노인 중 빈곤노인은 666명인 65.49%가 해당되었고 비빈곤 노인은 351명인 34.51%가 해당되었다.

3. 분석방법

SPSS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변량분석, 교차분석,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먼저, 고령화패널 10,254명 자료에서 65세이상 여성노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본 연구를 위한 대상자 선별작업을 하였다. 즉, 여성노인 2,419명의 데이터에서 여성노인세대의 빈곤여부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2세대 동거세대 3세대 동거세대는 제외하고 단독세대와 부부세대 여성노인으로 1,017명을 선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017명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통해 분석하였고, 세대유형과

빈곤여부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변량분석을 통해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나누어진 집단별 특성과 삶의 만족도와의 차이는 교차분석과 평균차이 분석을 하였다. 다음으로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변인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집단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4. 연구대상의 특성

여성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연령 71.86세의 1017명의 여성노인이다. 연령분포는 65-69세가 가장 많았고, 학력은 초졸이하가 85%를, 종교는 기독교와 불교, 무교가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결혼 상태는 58.3%의 여성노인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평균자녀수는 3.89명으로 3-4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가장 많은 42.4%였다. 건강

Table 1. Characteristics older women

(N=1017)				
Characteristics	Section	Frequency (person)	%	Mean(SD)
Age	65-69	421	41.4	71.86(5.406)
	70-74	307	30.2	
	75 over	289	28.4	
Education level	below elementary school	864	85.0	
	middle school over	152	15.0	
Religion	Christian	307	30.4	
	Buddhism	310	30.7	
	others	392	38.9	
Married	Yes	590	58.3	
	No	422	41.7	
Number of children	0	70	6.9	3.89(1.816)
	1-2	161	15.8	
	3-4	431	42.4	
	5-7	355	34.9	
Health level	low	593	58.3	
	middle	288	28.3	
	high	136	13.4	
House of ownership	Yes	755	74.3	
	No	261	25.7	
Residence area	urban	643	63.2	
	rural	374	36.8	
Household type	Single household	427	42.0	
	Couple household	590	58.0	
Economic activity	Yes	135	13.3	
	No	882	86.7	

수준은 하가 58.3%로 가장 많았고, 주택은 74.3%가 자가였으며, 거주지역은 도시에 63.2%, 농어촌에 36.8% 거주하고 있었다. 세대형태는 부부세대가 58%, 단독세대 42%로 부부세대가 비율이 더 높았다. 경제활동은 86.7%의 여성노인이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결과

1. 여성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 가구유형과 빈곤여부의 상호작용효과

여성노인의 가구유형과 빈곤여부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달라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세대유형

과 빈곤여부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삶의 만족도 수준을 분석하였다(Table 2, Fig. 1).

변량분석결과, 가구유형과 빈곤여부가 상호작용하여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 6.927, p<.01$).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46점에서 63점으로, 전체적으로 빈곤세대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비빈곤세대의 삶의 만족도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빈곤세대의 경우 여성노인이 단독세대 건 부부세대 건 간에 두 집단의 차이가 뚜렷하지는 않다. 그러나, 빈곤세대의 경우 여성노인의 가구유형에 따라 삶의 만족도 수준의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빈곤세대의 경우, 단독세대를 이루고 사

Table 2. Life satisfaction of older women focused on household types and poverty levels

(N=1017)

		Life satisfaction of older women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Household type		3043.167	1	3043.167	5.846*
Poverty levels		26341.715	1	26341.715	50.601***
Household type×poverty levels		3606.223	1	3606.223	6.927**

* $p<.05$, ** $p<.01$, *** $p<.001$

		Life satisfaction of older women		
		N	Mean	SD
Single household	Poverty	350	46.77	26.172
	Non-poverty	77	63.51	21.261
Couple household	Poverty	316	55.44	21.926
	Non-poverty	274	63.14	19.3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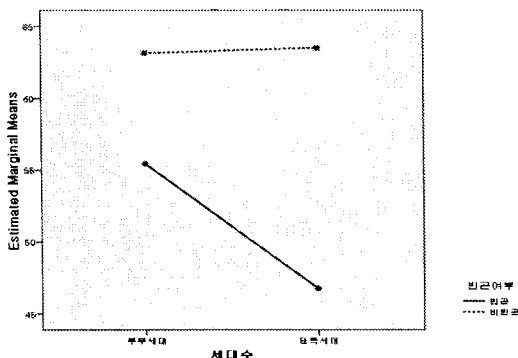


Fig. 1. Life satisfaction of older women focused on household types and poverty levels

는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부부세대를 이루고 사는 여성노인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Table 2, Fig. 1).

이러한 결과에 따라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단순히 가구유형이나 빈곤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기 보다는 두 변수가 상호작용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분명해졌고, 따라서 차후 분석에서는 여성노인을 빈곤단독세대, 비빈곤 단독세대, 빈곤부부세대, 비빈곤 부부세대의 4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별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Table 3. Characteristics of four groups of older women

(N=1017)

Section	Single household		Couple household		χ^2 value	
	poverty-single household N(%)	non-poverty-single household N(%)	poverty-couple household N(%)	non-poverty-couple household N(%)		
Age	65-69	150(47.5)	153(55.8)	95(27.1)	23(29.9)	100.612***
	70-74	102(32.3)	83(30.3)	100(28.6)	22(28.6)	
	75 over	64(20.3)	38(13.9)	155(44.3)	32(41.6)	
Education level	below elementary school	270(85.7)	204(74.5)	330(94.3)	60(77.9)	50.837***
	middle school over	45(14.3)	70(25.5)	20(5.7)	17(22.1)	
Religion	Christian	99(31.3)	83(30.3)	99(28.3)	26(33.8)	2.495
	Buddhism	93(29.4)	84(30.7)	107(30.6)	26(33.8)	
	others	124(39.2)	107(39.1)	144(41.1)	25(32.5)	
Number of children	0	12(3.8)	11(4.0)	43(12.3)	4(5.2)	91.362***
	1-2	30(9.5)	31(11.3)	78(22.3)	36(46.8)	
	3-4	139(44.0)	153(55.8)	103(29.4)	15(19.5)	
	5-7	135(42.7)	79(28.8)	126(36.0)	4(5.2)	
House of ownership	yes	258(81.6)	219(79.9)	215(61.4)	63(81.8)	46.044***
	no	58(18.4)	55(20.1)	135(38.6)	4(18.2)	
Residence area	urban	188(59.5)	186(67.9)	201(57.4)	68(88.6)	30.349***
	rural	128(40.5)	88(32.1)	149(42.6)	9(11.7)	
Economic activity	yes	33(10.4)	51(18.6)	41(11.7)	10(13.0)	9.730*
	no	283(89.6)	223(81.4)	309(88.3)	67(87.0)	
Health level	low	191(60.4)	126(46.0)	244(69.7)	32(41.6)	46.246***
	middle	85(26.9)	97(35.4)	74(21.1)	32(41.6)	
	high	40(12.7)	51(18.6)	32(9.1)	13(16.9)	

*p<.05, **p<.01, ***p<.001

2. 여성 노인의 집단별 특성의 차이

1) 여성노인의 집단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

여성 노인의 집단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그 결과 종교를 제외하고, 연령, 학력, 자녀수, 주택의 자가 유무, 거주지역, 경제활동 상태, 건강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비빈곤 단독세대와 빈곤단독세대 여성은 6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곤부부세대와 비빈곤 부부세

대는 75세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75세 이상 고령은 단독세대보다 부부세대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각 집단에서 초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노인이 중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노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빈곤부부세대의 94.3%가 초졸이하인데 비해 비빈곤 단독세대의 25.5%가 중졸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빈곤부부세대는 5-7명, 빈곤단독세대와 비빈곤 단독세대는 자녀가 3-4명, 비빈곤 부부세대는 1-2명의 자녀가 있는 비율이 높았다. 주택의 자가 유무에서도 보면, 모든 세대에서

주택이 자가인 경우가 많았으나, 세대별 분포차이에서는 빈곤부부세대의 자가 비율이 61%로 다른 세대의 80%이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빈곤단독세대와 빈곤부부세대의 경우 약 40%정도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반면, 비빈곤 단독세대는 32%, 비빈곤 부부세대는 11%로 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의 경제활동을 보면, 80%이상의 여성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빈곤 단독세대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경제활동비율이 다소 높았다. 또한, 건강상태를 비교해 보면, 모든 여성노인이 건강수준을 ‘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으나, 비빈곤 부부세대의 경우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와 ‘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같았고, 이와는 달리 빈곤부부세대의 경우 ‘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3. 여성노인의 집단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여성노인의 4 집단별 삶의 만족도 영향변인을 규명하기 앞서, 회귀분석에 투입된 변수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상관계수가 .133 ~ .341 로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변수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상관관계분석 결과 여성노인의 연령은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따라서 여성노인의 4집단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소득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함에 있어, 여성노인의 학력, 종교유무, 건강상태, 주택, 거주지역, 자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또한 소득 관련변수의 경우 이미 여성노인의 집단을 구분할 때 가구총소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통계적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독립변수로 투입하지 않았다.

먼저,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빈곤단독세대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

Table 4. Variable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of single household of older women

Factors	poverty-single household			non-poverty-single household		
	B	β	t	B	β	t
(Constant)	22.846		3.934***	37.832		7.173***
Education level(middle school over=1)	10.482	.167	3.054**	4.579	.103	1.705
Religion(yes=1)	2.098	.047	.857	.499	.013	.221
Health level	7.898	.256	4.731***	5.445	.213	3.644***
House of ownership(yes=1)	13.008	.230	4.272***	12.883	.267	4.563***
Residence area(urban=1)	2.304	.052	.915	-1.482	-.036	-.580
Number of children	1.346	.097	1.817	1.299	.102	1.729
F		10.725***			8.417***	
R ²		.173			.159	

Table 5. Variable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of couple household of older women

Factors	poverty-couple household			non-poverty-couple household		
	B	β	t	B	β	t
(Constant)	16.117		3.357**	29.610		2.767**
Education level(middle school over=1)	16.780	.149	3.035**	-1.124	-.022	-.198
Religion(yes=1)	3.003	.057	1.148	7.122	.158	1.418
Health level	12.604	.313	6.437***	7.407	.254	2.358*
House of ownership(yes=1)	8.244	.154	2.851**	15.645	.286	2.546*
Residence area(urban=1)	-2.340	-.044	-.834	7.195	.109	.978
Number of children	1856	.150	2.823**	-.867	-.069	-.615
F		14.598***			3.325**	
R ²		.203			.222	

회연구학적 변인으로는 학력, 건강상태, 주택이 영향변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1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빈곤단독세대 여성노인은 중졸이상이고, 건강상태가 좋고, 주택이 자가인 경우에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빈곤 단독세대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건강상태, 주택이 영향변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15.9%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비빈곤 단독세대 여성노인은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와 주택이 자가인 경우에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단독세대와 비빈곤 단독세대 여성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 변인을 비교해보면, 공통적으로 건강상태와 주택이 영향변인으로 나타났고, 비빈곤 단독세대 여성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는 건강상태와 주택이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빈곤 단독세대 여성노인들은 학력이 추가되어 학력과 건강상태, 주택이 영향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빈곤단독세대 여성노인들은 학력이 중졸 이상일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 경우, 주택이 자가일 경우에 삶의 만족도 수준을 높고, 비빈곤 단독세대 여성노인들은 건강상태가 좋을 경우, 주택이 자가일 경우에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부부세대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학력, 건강상태, 주택과 자녀수이었고 설명력은 20.3%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빈곤부부세대 여성노인은 학력이 중졸 이상인 경우,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주택이 자가인 경우, 자녀수가 많은 경우에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빈곤 부부세대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건강상태와 주택이 영향변인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22.2%이었다. 비빈곤 부부세대 여성노인은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와 주택이 자가인 경우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부부세대와 비빈곤 부부세대의 영향변인을 비교해 보면,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건강상태와 주택이었다. 반면 빈곤부부세대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는 학력과 자녀수가 추가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빈곤 부

부세대 여성노인과는 달리 빈곤부부세대의 여성노인은 중졸이상인 경우와 자녀수가 많을 때 삶의 만족도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IV. 결론 및 제언

여성노인의 가구유형별 빈곤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밝혀 비교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는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된 고령화패널(KLoSA) 데이터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여성노인 중 단독세대여성노인 427명과 부부세대 여성노인 590명으로 총 1,01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유형과 빈곤유무가 상호작용하여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비빈곤세대의 경우 여성노인이 단독세대 건 부부세대건 간에 두 집단의 차이가 뚜렷하지는 않았으나, 빈곤세대의 경우, 단독세대를 이루고 사는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부부세대를 이루고 사는 여성노인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노인 중에서도 빈곤하면서도 혼자 거주하는 빈곤단독세대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감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 집단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감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여성 노인의 가구유형별 빈곤유무에 따른 집단별 특성을 살펴본 결과 종교를 제외하고, 연령, 학력, 자녀수, 건강수준, 주택의 자가 유무, 거주지역, 경제활동 상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연령 분포는 단독세대보다 부부세대가 더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은 비빈곤세대가 빈곤세대보다 중졸이상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빈곤단독세대와 비빈곤 단독세대는 자녀가 3.4명이 경우가 40%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빈곤부부세대는 5.7명, 비빈곤 부부세대는 1.2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은 모든 세대에서 자가인 경우가 많았으나, 빈곤부부세대의 자가 비율이 61%로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전체적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빈곤 부부세대의 농촌거주비율이 1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경제활동 상태의 분포차이는 80%이상의 여성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세대별 경제활동 참여하는 비율이 빈곤세대 보다 비빈곤세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수준차이는 모든 세대에서 하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빈곤단독세대와 빈곤부부세대가 건강수준이 '하'인 경우가 60%이상으로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각 집단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4집단 모두 여성노인의 건강상태와 주택의 자가 여부가 공통 영향변인으로서, 여성노인이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자기의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삶의 만족감이 높았다. 노년기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치 않을 만큼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어 온 사실이다. 즉, 이는 노인들에게 있어 건강이 다른 연령층보다 중요한 개인적인 자원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오승환·윤동성 2006)이기 때문이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다른 연구결과(고보선 2003; 허준수 2004; 오영희 등 2005; 오승환·윤동성 2006)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노년기에 자기 집에서 거주하느냐의 여부가, 즉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자기소유의 집인지 아니면 전세나 월세인지에 따라 삶의 만족감이 달라진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많이 거론되지 않는 부분이다. 특히 본 연구 대상자의 경우 대다수가 자기 소유의 집에서 거주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적은 수이긴 하나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여성노인을 위한 주택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에 있어 주택정책이 미약한 것으로 고려할 때, 주택의 자가 여부가 노인의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입안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단순히 도배를 해 준다거나, 주택수리비를 제공하는 등의 소극적 주택정책에서 탈피하여 자기 소유의 집이 없는 노인에게 영구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지방의 폐가를 수리하여 노인 소유의 집을 갖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주택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각 집단별 특성변인을 살펴보면, 빈곤단독세대 여성노인의 경우 중졸이상의 학력일 경우 삶의 만족이 높았고, 빈곤부부세대의 경우 학력이 중졸이상인 경우 그리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노인의 삶의 만족감에 미친다는 사실은 선행연구(오영희 등 2005; 허준수 2004)의 결과와 유사하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의 학력수준이 낮고, 그 중에서도 여성노인의 학력수준이 남성노인에 비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의 삶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학력수준을 높일 수는 없으나 평생교육을 통해 노인의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비빈곤 부부세대 여성노인과는 달리 빈곤부부세대의 여성노인은 자녀수가 많을 때 삶의 만족도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소득관련 연구(김희삼 2008; 김진욱 2004; 김교성 2002; 박찬임 2005)에서 사적이전소득이 빈곤층의 생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적이전소득이라는 결과가 있는 것과 같이 빈곤단독가구노인의 경우 대부분 수급권자로 들어가(김영숙 2002) 공적이전소득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수급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많은 노인가구들은 자녀의 용돈과 생활비에 의존할 확률이 크기에 이러한 가구에서는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인 부분이나 정서적인 부분에서 의존하게 되기에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녀에게 가장 큰 경제적 부양부담을 줄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공적이전소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곤노인가구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여성노인의 가구유형과 빈곤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함으로써 여성노인집단을 보다 세밀하게 유형화 하여 삶의 만족도를 비교하고 가구유형 및 빈곤여부에 따라 여성노인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를 수 있음을 밝히고, 여성노인관련 정책수립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빈곤여부에

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고, 가구 유형과 빈곤여부에 중점을 두다보니 다양한 변인을 투입하여 모형을 구성하지 않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고보선(2003) 제주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1), 1-12.
 권중돈·조주연(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61-76.
 김교성(2002)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 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8, 113-149.
 김동배·박은영(2007) 여성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노인복지연구 38, 339-358.
 김수정(2007)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원인과 빈곤위험의 젠더격차. 페미니즘연구 17(1), 93-133.
 김영숙(2002) 도시 빈곤노인 가계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3(3), 95-119.
 김진욱(2004) 한국 소득이전 제도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0, 171-195.
 김희삼(2008) 사적소득이전과 노후소득보장. 한국개발연구 30(1), 74-130.
 남현주·이현지(2005) 여성 노인이 지각하는 통제감이 우울감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7, 255-277.
 박찬임(2005) 복지국가의 고만;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 국제노동브리핑 3(4), 1-3.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부(2005) 고시2006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고시. 보건복지부.
 석재은(2004)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실증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2), 167-194.

석재은·김태완(2000) 노인의 소득실태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지영(2003) 여성가구주와 남성 가구주의 빈곤 차이에 관한 연구 -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여유진(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승환·윤동성(2006) 노인의 삶의 질 특성에 관한 연구-도시·농촌·어촌지역을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 연구 32, 119-147.
 오영희·석재은·권중돈·김정석·박영란·임정기(2005)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홍식(2004)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와 공·사적소득이전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56(2), 5-27.
 정영숙(2005) 빈곤과 최저생계비 측정에 관한 연구-노인, 모자, 장애인 가구에 대한 비교, 소비자학연구 16(1), 195-207.
 조해경(2002) 성공적인 노화에 관한 연구-성인학습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최옥금(2007)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9(1), 5-25.
 최현수·류연규(2003) 우리나라 노인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3), 143-160.
 최희경(2005) 빈곤 여성 노인의 생애와 빈곤 형성 분석. 노인복지연구 27, 147-174.
 허준수(2004) 지역사회거주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4, 127-151.
 McLaughlin DK, Jensen L(2000) Work History and U.S. Elders' Transitions into Poverty. The Gerontologist 40(4), 469-479.
 Rupp K, Strand A, Davies PS(2003). Poverty among Elderly woman; Assessing SSI Options to Strengthen Social Security Reform. Journal of Gerontology 58B(6), 359-368.